



“희망 가지고 사세요” 경인년(庚寅年) 새 아침이 밝았다. 백호(白虎)의 해를 알리듯 온 대지에는 하얀 눈이 내렸다. 전북 부안의 월명암 사성선원에는 봉갑사 회주 도륜 스님이 여섯 분의 스님과 함께 겨울 안거를 나고 있다. 미수(米壽)를 바라보는 도륜 스님은 “내 나이가 많지만 내게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다”며 독자들에게 씩 없이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는 덕담을 전했다. 새 아침의 눈길을 걷는 스님의 포행길을 만순이가 따라가고 있다. 관련기사 A12 · A13면 글·사진=박재원 기자

2010 경인년 신년특집 48면 발행

- A**
- ◆ 종단대표 신년법어 4~6면
 - ◆ 새아침 대담/ 고은 소통을 말하다 7면
 - ◆ 새아침에 만나 선지식/ 도륜스님 12~13면

- B**
- 특집1. 어흥~ 호랑이 해가 밝았다**
- ◆ 불교 속의 호랑이 2면
 - ◆ 그림과 조각으로 만나는 호랑이 3면
 - ◆ 호랑이 인간에게 외치다 4면
 - ◆ 올해는 호랑이 해 내가 주인공 5면
 - ◆ 2010 호랑이 해 불교계 가상니우스 6면

- 특집2. 일체가 하나 되는 길을 열다**
- ◆ 경전 속 가족의 의미 9면
 - ◆ 우리절 가족법회를 소개합니다 10면
 - ◆ 우리집 가족법회를 소개합니다 11면
 - ◆ 움직이는 선원 동행기 12~13면
 - ◆ 주변 사람과 하나 되는 길 15면
 - ◆ 4대강 발원지에서 띄우는 편지 16~17면
 - ◆ 우리는 동창생 불심도 하나 20면
 - ◆ 사회를 하나로, 사회적 기업 21면

경인년 새해 독자여러분 가정에 자비 광명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일체가 하나임을 알면 희망·행복의 주인공

새로운 시간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시간이라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의 분절은 마디마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나간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이미 우리에게는 의미의 마디들이다.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시간을 앞질러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오기 전에 이미 많은 것들이 계획되고 시간이 오는 순간 또 다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과학문명의 시대다. 시간보다 빨리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주저한다. 브레이크 없는 전자처럼 달려 온 물질문명의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해 온 우리의 얼굴을 찾으려는 노력이 새로운 사조로 떠올

랐다. 2010년 경인년. 새해도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불교계 안팎에서 일어날 일들의 밑그림을 보면, 지난해와 별 다를 것도 없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작년 보다는 모든 결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바람, 희망이다. 새해를 맞는 희망이야말로 또 다른 역사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다. 희망이 없다면 아무도 동해까지 해를 맞으려 가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없다면 아무도 수행도량에 마음을 내리놓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은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해를 맞는 희망인가? 사람마다 사회조직마다 시행건 동해의 새해를 가슴에 품는 희망은 다를 것이다. 그 다름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갈음을 만든다. 희망의 개별성이 귀하지 않다면 그 희망들의 총체는 허망해진다. 작은 희망이 큰 희망이다. 그래서 희망은 있다는 그 자체로 고귀하고 성스럽다. 우리들 희망의 총체는 행복일 것이다.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행복을 위해 물질에 기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닦는 사람이 있다. 물질에 기대는 사람은 마음보다 물질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닦는 사람은 물질보다 마음 비우기 혹은 마음 다스리기에 가

치를 둔다. 물질이건 마음이건 우리가 거는 희망의 당간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공통분모를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일체가 하나라는 가르침이다. 인간 세상의 갈등은 일체가 하나임을 자각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어제의 ‘너’가 오늘의 ‘나’임을 안다면 갈등도 없을 것이다. 너와 나를 다르게 보고 내 편과 네 편을 다르게 인식하는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갈등은 너와 나를 함께 병들게 하지 않는가? 2010년 경인년 새해는 일체가 하나임을 자각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우침 속에서 살아가는 한해가 되길 발원한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곧 마음임을 알면 우리의 희망은 그 자리에서 행복이 될 것이다. 임연태 기자



謹賀新年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자 승
중앙총회의의장	보 선	교육원장	현 응
호 계 원 장	법 등	포교원장	혜 총

